

신속·정확 재난대처능력 강화

도교육청, 재난상황관리·대비 훈련 실시... 교육지원청·학교와 연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신속·정확한 재난상황 전파 및 보고 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상황관리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3~14일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재난상황 발생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간 연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과 지역별 지정학교 1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재난상황보고 훈련은 도교육청에서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 재난상황 발생 메시지를 발송하면 학교는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으로 동시에 재난상황에 대한 상황개요를 작성·보고하며, 교육지원청은 학교의 보고서 검토

후 도교육청으로 재전송하는 방식으로 15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대비 훈련은 재난상황보고 훈련과 연계해 재난 복구추진체계를 점검하고, 재난 상황 복구 과정에 대한 상황관단과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으로 진행된다.

한편 도교육청 주관 재난상황관리 훈련은 연4회 분기별로 실시하며, 이와 별도로 전북교육청은 행정안전부 주관 훈련 4회, 교육부 주관 훈련 1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이번 훈련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에 신속·정확한 보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학교 근무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무료 검진 | 도교육청, 5월 말 현재 3만9000여명 검진 완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올해 처음으로 교직원을 포함한 모든 근무자에게 잠복결핵감염 무료 검진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내 의무 검진 대상자 3만9,000여명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완료했다.

잠복결핵은 몸 안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활동하지 않은 상태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학교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의무 검진 대상이나 그동안 교직원만 수업 등으로 진료기관 방문이 어렵고 단기 근무자는 검진비 부담 등으로 검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전문인력이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지역별 거점 검진 장소를 운영해 학교에 근무하는 의무 검진 대상자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했다.

3월부터 현재까지 학교 근무자에 대해 검진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 채용되는 인력에 대해서도 11월 말까지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사업은 학교 내 결핵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은 물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교직원을 포함한 모든 근무자에게 잠복결핵감염 무료 검진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내 의무 검진 대상자 3만9,000여 명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완료했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3년간 연구 끝 세계 최고 수준 발전 성능 구현

전북대 나창운 교수팀, 마찰전기형 나노발전기 개발

전북대학교 나창운 교수팀(고분자·나노공학과)은 지난 3년 동안의 연구 끝에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마찰전기형 나노발전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석사과정 연구생인 신원재, 김해란 박사과정생인 박창신, 박사 후 연구원인 S. Paria, 이기쁨, S. Mondal 박사가 함께 이뤄낸 성과다. 연구결과는 세계적 저널 온라인 최신판에 게재됐다.

나 교수팀에 따르면 외부 응력이 가해지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무기계 압전소자 중 납을 포함하지 않아 독성이 낮은 황화주석(SnS)을 활용해 입력은 물론 마찰력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나노발전기 개발에 성공했다.

핵심 기술은 다층 구조의 SnS를 초음파를 이용한 간단한 처리공정을 거쳐 단결정 층 구조로 제어하는 것이다. 아울러, 카본나노튜브(CNT)를 전극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나노발전기의 유연성도 확보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나노발전기는 압력과 마찰력에 반응하면서도 유연성까지 있기 때문에 웨어러블 등에 접목하면



전북대학교 나창운 교수팀(고분자·나노공학과)은 지난 3년 동안의 연구 끝에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마찰전기형 나노발전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나창운 교수팀이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압력·마찰력에 반응
유연성까지 있어
웨어러블 등 접목시
다양한 인체 움직임
통해 전기 생산

휴대용 전자제품
실시간 충전 가능

다양한 인체 움직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휴대용 전자제품을 실시간으로 충전할 수 있다.

나창운 교수는 "주기적 충전을 해야 하는 휴대용 전자제품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발전 효율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개발된 나노발전기가 더욱 고도화된다면 전자제품의 주기적 충전의 한계를 크게 극복해 산업계 파급효과를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의약계열

입시설명회 개최

15일 대입지원전략 안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5일 오후 7시 창조나래(별관) 3층 시청각실에서 의약계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과이자 EBS 최고의 입시전문가인 유영민 대학교육연구소 최승후 교사가 의약계열 대입지원전략에 대해 2시간 30분 동안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단순히 설명회로만 끝나지 않고 강사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전형에 대한 학생·학부모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교육청에서는 학생·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과의 지원전략과 지역별 개설 현황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이번 입시설명회를 마련했다.

더불어, 많은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대학들에 대한 정보를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에서 안내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신뢰를 높여겠다는 구상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이공계특성화대학, 수도권대학 등의 입시설명회를 준비했다"면서 "이를 통해 더 많은 진학 정보를 학부모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번 입시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학부모를 위해 유튜브 꿈사다리 TV (<https://www.youtube.com/@jedumovie>)에 의약계열 지원전략 안내 동영상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전국 고교생 문예 백일장 개최... 7월 31일까지 신청접수

장원 수상자 문예창작학과 입학시 1년간 등록금 면제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한국문학을 이끌어 갈 고교생을 발굴하기 위해 '제25회 전국 고교생 문예 백일장'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응모 부문은 운문부 시 3편과 산문부 수필 1편이며, 주제는 자유다.

응모 기간은 7월 31일까지며, 문예창작학과 홈페이지(<https://munchang.wosuk.ac.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응모작품과 함께 이메일(jongun10@wosuk.ac.kr) 또는 우편(충북 진천군 진천읍 대학로 66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우편번호 27841)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장원 수상자는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할 경우 1년간 등록

금을 면제받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문예창작학과(043-531-2821)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북대학교 조류질병연구소는 지난 12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금연구실과 현장형 기금 질병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현장형 기금질병 예방 '맞손'

전북대 조류질병연구소-농진청 기금연구소

전북대학교 조류질병연구소(소장 장형관)는 지난 12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금연구소(소장 김시동)와 현장형 기금 질병 예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이날 전북대 조류질병연구소에서 장형관 소장과 김시동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기금 질병 예방 및 진단 관련 기술 개발 등 연구 협업 △ 기금 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 및 기술 교류 △ 연구 시설, 장비, 기술, 자원의 공동 활용, △ 연구 인력, 학술정보 교류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기금연구소(강원도 평창 소재)는 국내 닭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있으며, 토종닭의 산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품종 개발 및 개발 연구, 가금 사양 기술 보급 등을 수

행하고 있다.

또 전북대 조류질병연구소(익산 소재)는 국내 유일의 대학 기반 기금 질병 전문 연구기관으로, 차세대 현장 실무형 기금 질병 전문가를 양성하고 현장밀착형 기금 질병 방제 기술 개발 연구에 힘쓰고 있다. 2016년 가금류질병방제연구센터로 출범해 지난해 조류질병 연구소로 승격했다.

장형관 소장은 "기금 질병 유입 경로 차단, 현장 질병 임상 등 연구 전반에 걸쳐 긴밀히 협력해 기금 질병 문제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양 기관의 연구 협력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기금 질병 예방 기술 개발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시동 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 사이에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가 지속돼 기금 생산성 제고와 질병 예방 연구에 박차를 가하자"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형 천원의 아침밥' 레시피 선호도 조사 실시

전주대, 지난달 공모전 진행... 7개 수상작 선정

한식조리학과 재학생들에 1~4위까지 레시피 선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학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앞두고 '전북형 천원의 아침밥' 레시피에 대한 대학생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주대는 지난 5월 전라북도 로컬푸드를 활용한 대학생들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레시피 공모전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총 43개 팀이 참가, 7개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 중 1~4위까지의 레시피가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재학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12~16일 5일간의 기말고사 기간에 재학생들은 단돈 천 원으로 2학기에 운영될 천원의 아침밥 메뉴를 매일 선착순 300명에 한해 맛볼 수 있다. 특히 대학생들의 취향을 고려해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메뉴도 선보인다.

홍성태 대외부총장은 "우리 대학이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지역 먹거



리 안정화와 학생들이 더 건강하고 맛있는 천원의 아침밥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시행 기간 든든히 아침밥을 먹고 건강과 성적을 모두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이번 기말고사 기간 진행되는 천원의 아침밥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된 메뉴에 대해 피드백을 거쳐 2학기에 차별화된 천원의 아침밥 메뉴를 만들어 도내 대학과 공유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메카신 루게릭병 치료 임상시험 성공

원광대 김성철 교수 개발

원광대학교는 김성철(글로벌희귀질환네트워크연구소) 교수가 개발한 퇴행성 뇌질환 치료 후보 물질인 메카신(Mecasin)에 대한 루게릭병 치료 임상시험의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됐다고 13일 밝혔다.

게재된 학술지는 SCI급 국제저널인 보완대체의학 분야 최고 전문지 Journal of Ethnopharmacology(IF 5.189, Q1) 온라인판이다.

이번 연구는 루게릭병의 유일한 세계 표준치료제인 리루졸과 비교 임상으로 진행됐으며 원광대 광주한방병원과 원광대 산본병원에서 다기관, 이중맹검법과 위약이 사용됐다.

임상시험은 36명의 환자를 모집해 최종 30명을 선정 후 12주 동안 진

행한 임상2상 시험에서 메카신과 리루졸을 병용 투여한 치료군이 가짜약(위약)과 리루졸만 단독으로 투약한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질병 진행 억제효과를 나타냈다.

또 중대한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메카신은 임상2상을 완료하고 고용량으로 복용 기간을 2배 늘려 6개월 동안 관련 임상시험을 원광대 광주한방병원에서 진행 중이다.

경도~중등도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는 임상2상 시험이 원광대 광주한방병원과 원광대 산본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메카신은 지난 2011년 12월 한의약선도 기술 개발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보건복지부 과제에 선정돼 관련 연구가 수행됐다. /뉴스